



IGC, 2026/27 세계 밀·옥수수 생산 전망 하향

(IGC lowers 2026/27 world wheat and corn crop forecasts)

국제곡물위원회(IGC)는 중동 분쟁의 영향으로 2026/27 시즌 세계 곡물 생산량이 당초 전망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량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IGC는 월간 보고서를 통해 2026/27 시즌 총곡물 생산량 전망치를 300만 톤 하향한 24억 1,400만 톤으로 조정하였다. 소비량 전망치 역시 300만 톤 낮춘 24억 3,700만 톤으로 수정하였으나, 여전히 생산량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단백질 함량을 극대화하는 GLP-1으로 미국 농가, 완두·렌틸콩 재배 주목

(Protein-maxxing, GLP-1s have US farmers betting on peas and lentils)

곡물 공급 과잉에 따른 낮은 가격,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상호 관세, 비료 및 디젤 가격 급등으로 미국 농업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완두, 렌틸콩, 병아리콩 등을 포함한 두류는 옥류·가금류·수산물 등 전통적인 단백질 공급원을 넘어 단백질 강화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구매업체, 폴란드산 밀 구매

(US buyers bought wheat from Poland in past weeks, traders say)

유럽의 거래업자들은 목요일, 미국 내 밀 가격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급처를 찾는 과정에서 미국 구매업체들이 최근 수주간 폴란드산 제분용 밀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폴란드 현지 트레이더에 따르면, 폴란드산 제분용 밀 3만 톤 규모 선적 4건이 미국 동부 연안 제분업체로 향하는 조건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케켄항 시위로 최소 18척의 곡물 선박 운항 지연

(At least 18 grain ships delayed by trucker protest at Argentina's Quequen port)

아르헨티나 케켄 항구에서 소수 트럭 운송업자들의 시위로 인해 곡물 및 유지작물 화물 선적이 지연되면서 최소 18척의 선박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업체들은 손실 규모가 수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트럭 운송업자들은 중동 분쟁으로 올해 연료 가격이 약 30% 상승한 데 따라 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4월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였고, 바이아블랑카 및 케켄 항구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Thomson Reuters